

1 학내
영인총학생회장, 한총련 학자추진 음악 논란

2 사회
새로운 신봉재... 숨은 눈으로 학업을 바라보다.

3 사람
북경에서 서울로 온 수자이! 그가 일본인과 02학번으로 사는 방법

4 문화
만종기요와 노래패, 근대 노래패를 위한 곳이지?

시민들, “전쟁 그만!”

지난 20일(목)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 전세계적으로 반전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과 한국군 파병철폐 철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정당원인 20일(목), 서울 문화문에서는 3천 여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반전 촛불시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종철 여중생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지금 이라크에서는 포탄이 맞아 오고 고통받는 것보다 폭격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한다”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전쟁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열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국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이라크군을 지지한 우리정부를 비판했다. 최열 공동대표는 “개미 대통령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못 벗어나고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매일 일정한 시각에 나와서 우리들의 반전 의지를 (정부와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반전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어 21일(금)에도 문화문에서 촛불시위가 열렸다. 이날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은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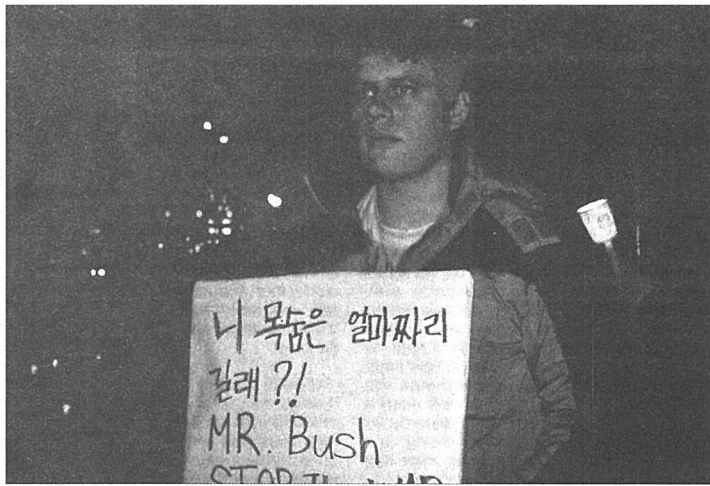
았다.

다음날인 22일(토) 오후 4시부터 종로공원에서는 반전평화촛불대행진 행사가 열렸다. 문정현 신부님은 이날 연단에서 “전세계 민중과 함께 우리 반전 목소리가 모여있으니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며 “민중의 촛불로 청와대와 국회를 둘러싸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도 참정당원인 20일(목) ‘석유와 패권을 위한 이라크 전쟁 반대’와 ‘노무현 정부, 이라크군 파병철폐 철회하라’라는 기치로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외대인 규탄대회’가 열렸다. 붉은광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라크 민중에 대한 폭력’을 시작으로 참가 학생들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중국어과 학생회장 오재균(01)군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네갈 학생(사회·정형계열 03)장은 “일본이 있는 전쟁은 없다”며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름아닌 석유와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창호·권정주 기자 hufshan@hanmail.net



포다시... 전쟁?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시작한 20일(목), 광화문에서는 ‘반전 촛불시위’가 열렸다. 다시 시작된 미국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야 하는가.

양창호 기자

용인배움터 새내기 실종된지 10일째

용인배움터 이상희(정보산업과·컴퓨터공학 03)군이 지난 15일(금)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8교시 수업이 끝나고 승차장 근처에서 이 군을 봤다는 과산배의 증언을 끝으로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이군의 가족들은 학교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학생회장 이상희(정보산업과·컴퓨터공학 03)군은 “이군은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고 학기초와 이번 일과 해 그의 동기들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군의 형 이국희씨는 “지금까지 가족들은 이군의 연락이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며 “무수일이 있는데도 모르겠고, 잘 자내고는 있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한다”는 심정을 전했다.

최진익 기자 iterr1004@hanmail.net

윤강로 동문, 또 10억원 기부해

우리학교 동문인 윤강로(인도어과 77졸) 서울금융실업사장이 지난 12일(수) 우리학교에 학교발전기금 10억원을 기탁하기로 하고 안병만 총장에게 1차분 2억원을 전달했다. 윤강로 동문은 1차분의 나머지 기부금은 앞으로 매년 2억원씩 기부하게 된다.

대학광복은 건립중인 서울배움터 본관에 첫 단시비를 갖춘 고급강의실을 만들어 그 뜻을 기리기로 했으며 기부금 중 일부는 장학금 일부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동문은 “외대나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의 선도와 역할을 해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세계적인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기금을 출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김경신(서양·노어 03)
고정영(동양·아랍어 03)
박승열(정경계열 03)
박은희(정보산업과·전자정보공학 03)
박지혜(서양·영어역무 03)
송지혜(서양·독일어 03)
이혜상(법·법학 03)
조혜원(서양·노어 03)
지성미(동양·아랍어 03)
이상 9명을 수습기자로 임명함.

외대학보



전쟁이 아직... 98% 부족해

지금으로부터 2세기전,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대서양 연안에 있던 13개의 작은 식민지들의 집합체로 지나지 않았다. 1776년 영국 왕 조지 3세에 맞서 독립을 쟁취한 이들 식민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북아메리카 전역을 지배하도록 신에 의해 선택받았다고 믿었다. 기독교도가 신대륙을 정복하고 개척하는 것을 ‘신의 부여한 명백한 사명’이라고 여긴 이 오만방만했던 생각은 18세기 이래 미국이 원주민을 압박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대량학살전쟁을 시작으로 미국의 영토가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확대되자, 이 ‘명백한 운명’의 신봉자들은 이번에는 해외까지 힘이 미치는 대제국을 꿈꾸었다. 루마, 필리핀 등 몇몇 스페인령 식민지를 빼앗기 위해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해의 식민지 침략을 시작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아프리카, 멕시코, 중앙아시아, 그리고 카리브해의 나라들을 차례차례 공격해 들어갔다. 미국 해방대는 수많은 나라에서 점령군으로 주둔했는데 해방대가 철

수할 때는 대부분 미국에 우호적인 독재자를 내세워 무장시킴으로써 그 나라 국민들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태평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법이고 유엔이고 국제재판이고 안중에도 없이 미친 듯이 전쟁에 매달리고 있는 미국의 앞날, 즉 1·2차 세계대전 후 대제국주의 운명이 그 러렸듯 그렇게 몰락해가는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 눈에 선하지 않은가?

이번 주제가제는 이른바 ‘전쟁종국’에 걸린 미국에 대한 해부이다.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인도는 역사적, 시국구조적 배경, 그리고 2000년이라는 짧은 역사동안 300년이 넘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미국의 해외침략과, 또한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통해 유포하는 이데올로기가 작업됨,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상이나 다름없는 전쟁에 끌려다니는 한국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주제기획 4.5 편

대학교수 8백여명, ‘전쟁반대’ 선언

교수대표단,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명백한 침략전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입니다. 이런 전쟁에 앞장서는 부시는 명백한 전범이며, 이에 동조하는 토니 블러터 영국 총리도 전범입니다. 이라크에 지원군을 파병하려는 한국도 불법하지만 전범국가며, 노무현 대통령도 전범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수들이 ‘차라리 나온 이유입니다’ (교수노조 위원장 황상익 서울대 교수)

대학교수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군대와 한국군 파병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올해 들어 여중생 사망사건에 이은 두번째 직접행보다.

교수노조, 민주교협 소속 교수 80여명은 지난 21일(금)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침략군대와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교수 800인의 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며 파병계획을 발표하자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파병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교수들은 조만간 있을 국회 ‘파병 동의안’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탄압을 비롯한 대외국 투쟁을 벌일 계획도 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모종의 뒷거래가 있을 법도 한데 한

두번 속는 일이 아니다”면서 “북핵문제는 적국적으로 해결하되 이라크 전쟁 지지와는 별개의 것이 되어야 한다”며 목적을 밝혔다.

강교수는 또한, “이번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유엔헌장에 어긋나며 파병의사를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은 유엔헌법 국제법과 유지에 거역한다는 우리헌법 5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수들은 파병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라크 양민학살에 동참해 한반도 평화와 사려없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부도덕한 이라크 침략 지지와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한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양민학살에 대한 동참이라는 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파병반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부시 미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과 관련, 교수들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며 “무고한 이라크 양민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규탄 성명서를 통해 무력행사는 ‘유엔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외부국력에 대한 자위권의 발현이고 인정될 때만이 적법한 것



으로 용인되고 있다”며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 상 불법이며 침략행위”라고 지적했다. 1시간 가량 미 대사관 앞 규탄집회를 마친 교수들은 효자동 청와대 근처에서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진행된 ‘이라크 전쟁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장에서 서울에 이어주 교수는 전 결반대와 관련한 무용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민중연대 집회를 마친 이후 서울에 김세균 교수 등 교수 대표단은 민중연대 대표단과 함께 청와대에 한국군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유뉴스

저는 여러분이 죽이려는 바보 그 아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이려는 그 아이입니다...

이전 액션 영화도 아니고 공상영화도 아니고 비디오 게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될 잘못했는지 모를 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엄마와 아빠가 살아 있기만을 바랄 때 슬퍼합니다.

-이라크 출신 한 미국소녀의 평화핀지 본문 중-

민족자주권론

외대학보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반대합니다

외대학보

우루과이와 교육개방

▲지난 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는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타결 지었다. 특히 농산물 협상 결과는 우루과이 국민들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애초 ‘잘 만든 개방하지 않았다’던 김영삼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쇠고기, 돼지고기, 갈을 등도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당초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지 10년째 되는 해다. 오는 31일은 교육시장 분야 개방개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는 날이다. 한편, 지난 20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단체와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달말까지 개방개최를 제출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방개최서 제출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고등(대학)과 상급교육 부분을 개방해 경쟁력을 키워주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교육·의료서비스도 상품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교육을 상품의 한 종류로 취급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좋지 않다 고 생각한다. 교육은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의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개방 찬성론자들이 “교육개방을 하면 국내 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라는 주장은 다시금 실례를 필요로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충실하지 못한 것은 외국의 교육기관이 들어와 경쟁을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 약화, 즉 국가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 일어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개방개최서를 계속 밀어붙여 보내왔다. 10년 전의 농산물개방으로 인해 수입되는 농산물도 농민들이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비추면 교육개방으로 외국의 자본에 의해 우리나라의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교육개방을 완전히 지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편지장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명백한 운명'



명백한 운명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76년 영국의 지배에 맞선 후 독립을 쟁취한 미국의 혁명가들은 그들이 북아메리카지역을 지배하도록 신에 의해 선택받았다고 믿었다. 이 기독교도들은 이를 '명백한 운명'이라고 표현하며 18세기 이후 원주민을 침략하는 것과 영토 확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했다.

아메리칸 원주민(인디언)에 대한 대량학살 전쟁으로 시작한 미국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1848년까지 멕시코 영토의 반 가까이를 빼앗아 미국의 영토를 서해

안까지 늘렸다. 그동안 아메리카 원주민은 계속 전쟁에서 패배해 토지를 빼앗겼고, 결국 미국정부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강제 수용됐다.

미국의회는 멕시코와의 전쟁을 두고 영글로색슨계 백인 민주당의 영광스런 확대라고 주장하며 정당화했다. 이 전쟁에는 다른 이변이 있었다. 노예를 사용하는 남부의 농장경영자들에게는 새로운 토지가 필요했으며 금광이 그 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영토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자 '명백한 운명'의 신봉자들은 이번에는 해외로까지 힘이 미치는 대제국을 꿈꿨다. 당시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새로운 시장을 필요

군산복합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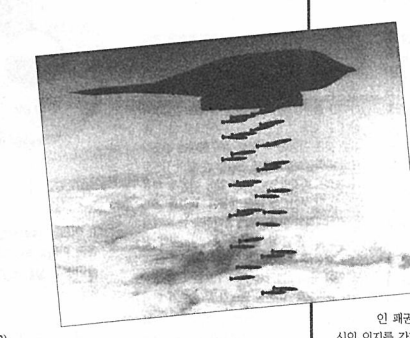
미국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미국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바로 군산복합체가 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한 군산복합체는 군수위주의 비효율적 기업을 뜻한다. 다인 군수산업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기업은 록히드 마틴, 제너럴 일렉트릭, 보잉 등이다. 이들 기업에게 전쟁과 군비경쟁은 곧 돈을 벌 수 있는 절묘한 기회인 셈이다.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면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검토를 살펴보자.

지난 걸프전 당시 미군은 이라크에 매일 2500회의 출격을 감행해 두터 6천개의 폭탄과 2천의 무기를 쏟아부었다. 이로써 냉전이후 휴입 상태였던 미국 군수공업이 걸프전 기간 중 야간작업에 돌입할 정도로 활황을 맞이한 것이다. 페트라이트 미사일 등 무기공간의 창고에 쌓이던 재고를 일시에 정리한 다음 새로운 첨단무기 개발비를 걸프전에서 흡수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하루 16억 달러의 전쟁비용이 든 걸프전쟁을 둘러싸고 냉전해체 뒤 쏟아진 거대 미국무기의 재고를 정리할 실증장이었다는 호언 비란도 있었다. 그러나 걸프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탈냉전 시대가 찾아오면서 각국의 군수산업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미국의 경우 냉전의 마지막 해인 90년을 고비로 국방 예산은 하향곡선을 그었다. 90년 304억 8500만 달러였던 국방예산은 91년 280억 달러, 92년 259억 달러, 93년 288억 달러, 94년 271억 달러로 내려앉았다. 이런 추세에 놓여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 전쟁으로 인한 잔혹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해외 침략사

- ▶트리폴리 전쟁, 모로코와 전쟁(1801-1805)
- ▶캐나다와 콜로라도를 빼앗기 위해 영국군 선전포고(1812-1815)
- ▶알제리 전쟁(1816-1818)
- ▶쿠바 · 푸에르토리코, 산토도밍고 ·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침공(1898-1902)
- ▶수미트레섬 쿠알라트르 침공(1892)
- ▶멕시코의 전쟁(1847-1848)
- ▶중국 상하이 · 광둥 침공(1854-1856)
- ▶일본 시모노세키 침공(1853-1854)
- ▶콜롬비아 파타카 침공(1855)
- ▶대만 침공(1867)
- ▶우라나르(당시 조선) 침공(1867-1872)
- ▶일본 침공(1868)
- ▶멕시코 침공(1870-1873)
- ▶아일랜드 침공(1882)
- ▶우라나르(당시 조선) 침공(1888)
- ▶아일랜드 침공(1891)
-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침공(1894)
- ▶우라나르(당시 조선)과 중국 상륙(1894-1896)
- ▶미사전, 쿠바 · 필리핀 · 괌 · 푸에르토리코 침공(1898-1899)
- ▶추추라키섬 점령(1899-1900)
- ▶필리핀과 전쟁(1900-1902)
- ▶중국 의화단 집단 군사원정(1900-1902)
- ▶시리아섬 · 필리핀 레테섬의 이슬람교도에 대한 군사작전(1903-1904)
- ▶쿠바 점령(1906-1909)
- ▶중국 상륙, 베이징 침공(1911-1912)
- ▶타이 상륙(1912)
- ▶나방과 침공(1911-1912)
- ▶산토도밍고 점령(1916-1925)
- ▶제 1차 세계대전 참전(1917-1918)
- ▶신생국 소련 침공(1918-1920)
- ▶코스타리카 침공(1921)
- ▶중국에 무력개입(1922-1941)
- ▶중국 광둥, 대방양의 인내대대 점령(1938)
- ▶이란의 모사디그 정권 전복(1933)
- ▶중동위기 선동(1938)
- ▶통킹만 무력도발(1944)
- ▶베트남 전쟁(1954-1972)
-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1979-1981)
- ▶쿠웨이트 카스트로 암살 기도(1980-1981)
-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1980-1994)
- ▶걸프전(1990-1991)
- ▶수단 · 아프가니스탄 미사일 공격, 이라크 공격(1998)
- ▶유고연방 침공(1999)
- ▶아프가니스탄 침공, 탈레반 정권 붕괴시작(2001)



석유와 미국의 국가전략

한때 이라크 전쟁이 전쟁종전 상황에서도 미국의 전쟁의 명분으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꼽고 있다. 이를 무기로 인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라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자국 안보의 위협, 독재로부터 억압된 시민들의 해방이라는 명분을 들였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임을 생각할 때 이라크 또는 다른나라의 안보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각종 전쟁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라크 공격의 원인으로 석유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 제1의 석유수출국임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를 장악해 되면 미국의 석유수급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이윤도 보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절대적인 패권위치를 유지해 세계의 어느 곳으로 자신의 의지를 강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싶어서이다.

정리 · 한주연 기자 naok777@hanmail.net

권정우기자 tingyu@hanmail.net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초빙 2003학년도 2학기

변화하는 외대! Multiplayer 인재 양성!

변화하는 대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외국어 교육과 국제지역학의 예로서, 우리대학의 세계화를 선도해 온 한국외국어대학교/세계를 이룰 Multiplayer 인재를 양성할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초빙분야

교류	단기대학	학부(학과)	초빙분야	인원
서울	서강대대학	영어학부	통·번역	1
	중국어과	중국어과	중국어과	1
	동양대학	아랍학과	아랍학과	1
울진	서울대학교	포르투갈학과	지역학(정치·경제·역사)	1
	동양대학	태국어과	어문학	1
	아프리카학과	아프리카학과	역사 또는 문헌인문학	1

접수기간

2003년 5월 1일(목) ~ 5월 9일(금) 오후 5시까지

지원자격

본 대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지원지역

가. 접수여건상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영어학부 통·번역분야는 통·번역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통·번역 포괄 인정분야 박사과정 이수자 이상인 자
다. 초빙분야 해당 외국어로 강의 가능한 자
라. 원정처 교수서 교무처 (TEL 02-961-4282)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www.hufs.ac.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 학생을 위한 '자기 성장 프로그램' 실시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사제와 같이 교사로서의 인격적 특성을 연마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적극 참여하여 점차 훌륭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의 목적: 교사는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에 사범대학에서는 예비(교사)인 사범대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격적 자질을 개발하는 기회를 주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의하여 자기 성장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대상: 사범대 학생 120명(선착순)
- 장소: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내 집단상담실(전화: 교내 4164)
- 운영일정

차수	운영일정	프로그램 실시일 및 총 진행 시간	대상인원
1	2003년 4월	월 연숙 4회 4/7 4/14 4/21 4/28 (8시간)	10명 내외
	오후 3시~오후 5시	수 연숙 4회 4/2 4/9 4/16 4/23 (8시간)	10명 내외
2	2003년 5월	월 연숙 4회 4/4 4/11 4/18 4/25 (8시간)	10명 내외
	오후 3시~오후 5시	수 연숙 4회 5/5 5/12 5/19 5/26 (8시간)	10명 내외
3	2003년 9월	월 연숙 4회 9/8 9/15 9/22 9/29 (8시간)	10명 내외
	오후 3시~오후 5시	수 연숙 4회 9/3 9/17 9/24 10/1 (8시간)	10명 내외
4	2003년 10월	월 연숙 4회 10/6 10/13 10/20 10/27 (8시간)	10명 내외
	오후 3시~오후 5시	수 연숙 4회 10/8 10/15 10/22 10/29 (8시간)	10명 내외
합계		교원 4회 10/10 10/17 10/24 10/31 (8시간)	10명 내외
			12명 내외

* 주 1회씩 총 4회(합) 참여요임. "공유임은 주주 조정함."
■ 신청절차: 위 프로그램은 사범대 학생에게는 필수적이며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 게시판에 '신청함'에 신청하십시오.)

사범대 학생 /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

외국어연수생 모집

~ 이번 10주과정 ~

- 교육과정: 2003년 4월 21일(월) ~ 6월 27일(금), 10주
- 모집과정 및 학과: 일반인, 대학생과정: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노어(총 24개 외국어)
- 수업시간 및 요일: 대학생과정 / 17:40 ~ 19:30 / 주 4일(월, 화, 목, 금) 일반생과정 / 19:40 ~ 21:30 / 주 4일(월, 화, 목, 금)
- 신청안내: 원서교부 및 접수처: 2003. 3.24(월) ~ 4.10(목)까지 선착순 / 외국어연수생지원(전화/FAX/인터넷으로 접수가능)
- 제출서류: 수강원서(본 원 소정양식), 사진 2장(반드시 1cm(원생증사진)용), 등록금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자국 재한 학생 (타 대학교 학생도 지원 가능)

인터넷 접수방법 - <http://hufs.ac.kr> - 연수부 - 온라인지원서접수

수강료

■ 납부기간: 2003. 3.24(월) ~ 2003. 4.10(목) / 외국어연수생지원 수업 및 운영

■ 입금계좌: 재일은행 외대지점 132-10-00015, 한국외국어대학교 은행으로 온라인 송금시 (타은행의 경우 입금할 경우 확인절차 요함)

비밀성시험(Level Test)

■ 일시 및 장소: 2003. 4.12(토) (대형실 14:30, 일반인 15:30)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생지원

■ 해당 언어별로 Level Test (외국인 간사제 1:1 인터뷰)

■ 발표: 2003. 4.16(수) 11:00 본 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전화 문의 가능)

기타

■ 교육기간중 도서관 및 시청각교육원(인문실습실) 등 교내시설 이용가능

■ 문의처: ☎ 961-4174/5, 962-7119, FAX: 962-057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생지원

STOP the WAR

‘불의’의 동맹자, 한국

널리 알려져있듯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단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알록달록 '특별'했지 실상 주종관계와 다름이 없는 이 관계는 한미간 군사문제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곤 한다.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유엔군을 장악하고 전면개입을 단행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넘겨준 이후로 한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상태와 미국이 발하는 여러 전쟁에까지 동원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전쟁정당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미국

“자신과 다른 문화와 문명은 제기대상
‘정복주의’ 불려 일으키는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에 대한 농욕과 멸시는 가장 심해
언론·대중문화에서도 나타나는 ‘전쟁정당화’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인종이다. ...우리는 세계의 문명화를 담당하라는 사명을 스스로부터 위탁받은 특별한 인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신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민산하고 망명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신은 우리를) 통치의 달인으로 만드셨다.”

1900년,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 당시 앨버트 비버리지 미 상원의원의 말이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문화·문명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반문화’, ‘악’으로 보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짓는 인종차별주의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미국의 다양한 이데올로기 작업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기독교 근본주의의 도 미국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한 몫 하고 있다. 실제 부시 미 대통령이 아랍마디 기도도 일과를 시작하는 청교도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상이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고 악은 오로지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기독교 사상과 보수세력의 결속이 널리 이뤄져있는 현 사회에서 실득력을 가진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보수세력과 결탁하여, 인종차별주의(기독교인은 지주들 받아 그 현재의 종족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 창세기 9장 25절) - 정복주의(성경적이고 변상하여 땅에 출민하라, 땅을 정복하라) - 창세기 12장 2절의 이상을 따게 된다.

미국은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널리 퍼트려 그대도 국제사회에 적용, 미국은 ‘신의 기호가 함께 하는 나라’이며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적 기반에서 미국은 특히 동방나라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동방을 열었던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데, 작년 1월의 미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된 북한·이라크·이란이 모두 동방나라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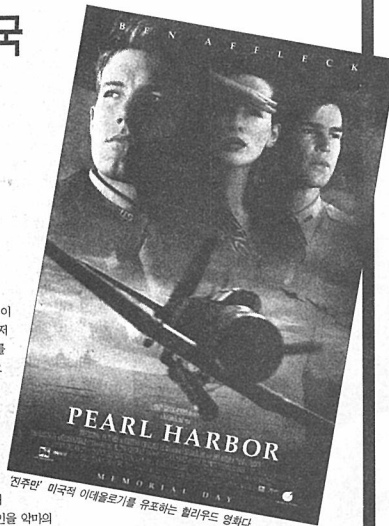
동방문화에서 아랍권 나라들에 대한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슬람교에 대한 미국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극심하다. ‘이슬람’ 하면 쉽게 연상되는 ‘한 손에는 코란, 다른 손에는 칼’이란 말이 사실은 13세기 십자군이 이슬람권에서 패배할 당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20세기 들어와 발원한 중동전쟁의 원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호전적인 이슬람교도의 종교적 분쟁’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에 발원기류가 강타하면서 발생된 지역 패권다툼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미국의 진보적지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일부 광적인 부수들’에 의해 실명된 9.11테러가 미국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이

슬람과 서방문명의 대결양상으로 보여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저주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애초 중동·문화화상정하는 이슬람교도는 미국의 이데올로기 공격으로 인해 ‘폭력적이고 아랍적인 문명’으로 농멸을 당하게 된 것이다.

언론의 왜곡보도도 미국의 전쟁을 감싸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 1차 걸프전쟁이 사담 후세인의 승리로 끝났을 때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의 승리’라며 후세인을 격찬했다. 하지만 후세인이 서방의 석유 지배를 위협하면서부터, 서방언론은 태도를 바꿔 후세인을 악마의 화신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걸프전 당시 서방의 모든 언론은 후세인이 쿠웨이트전에 기름띠를 유출시켰다며 ‘생태계 테러주인’이라고 비난했지만 실제 그 기름띠는 미국의 폭격작동이였다. 영국신문 (인디펜던트)의 한 특파원은 이번 이라크 침공이 일어난 후 ‘미·영 정부가 상황을 어떻게 왜곡할지에 눈에 선하다’며 ‘신문에는 미군을 ‘해방자’로 환영하는 무슬림들의 사진이 등장했지만 걸프전에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이 에게 압을 유발한 열화우물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미국의 이런 보이지 않는 실득은 대중문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폭격’, ‘타격’, ‘타격’, ‘인디펜던스 데이’, ‘진주만’... 미국적인, 너무나 미국적인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 영화평론가 정성일씨는 이렇게 지적한다. “자본과 문화가 대중이라는 소비의 대상과 함께 만나서 거대한 이윤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 사이에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패권주의 외교정책에 따라 우방국가들에 실득을 시작하였다. 그 실득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군사산업의 배를 불리는 길로 갈 것이다.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그 동맹관계는 매우 정교하고도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우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미군 군사산업 홍보영화를 보도록 유도한다.”

양창호 기자 ihufsan@hanmail.net



진주만 미국적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할리우드 영화.



1953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조인하고 있다

1964년 베트남 전쟁

1964년 미국 대통령 존슨은 미 지상군을 베트남에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20여개국에 전사자를 보내 베트남 참전을 요구했다. 이에 대부분의 나라가 반대 내지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에 반해 당시 한국인이 대규모 전투 부대에 파견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한국은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육해공군 연인원 32만 5천 9백여명을 참전시켰다. 미국이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베트남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한 ‘베트남전쟁’에 미국은 왜 한국군을 끌어들이었을까? 그 이유로는 미국의 개입을 국제적 대외에 입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미군도 화를 줄이려는 분식인 유력하다. 또한 미국이 요구한 베트남 파병에 한국이 적극적이었던 것도 군사주체로서 집권한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자 한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

베트남 참전에서 한국군은 전사자 5천여명, 고엽제 피해자 2만여명, 부상자 1만여명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지만 그 대가로 받아들이는 17억 달러의 수입은 참전도 하지 않은 일본과 대만이 벌어들인 돈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1991년 걸프전쟁

미국이 세계 석유의 60%가 매장되어있는 중동의 석유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는 것이 걸프전쟁의 목적은 아니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분쟁이 교섭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묵살하고 이라크를 맹렬하게 폭격하여 이라크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이 전쟁은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냉전이 해체된 당시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미국의 메시지를 전세계로 전달하는데도 목적이 있었다. ‘미국이아랍도 최고다. 결코 잊지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체를 감기같이 찾아오는 콜라리스 폭탄, 피부에 달라붙어 인체를 태우는 백인 폭탄, 작은 핵폭탄이라 불리는 기호 폭탄 등 역사상 유례없는 고강도 폭격을 단행하여 수만명의 이라크인들과 수천명의 민간인들을 살상한 이 불의의 전쟁에 한국은 미국 대통령 부시가 요구한 3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주둔보상금을 지원했다. 게다가 당시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던 한국은 다국적군으로서 1991년 1월에 의외지왕단 150명을 사두에 파견한데 이어 2월에는 공군 수송단 180명을 아랍에미리트연안에 파병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센 미국의 폭격기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에 개입되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빈 라덴을 범인으로 지목한 뒤, 실사 빈 라덴이 테러를 배후에서 기획했다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근거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부당한 침략행위를 단행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미국의 보복공격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한미 안보동맹 체를 재확인하며 미국과의 협력과 같이 맹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전쟁도 미국이 공식 요청하기도 전에 전쟁 정의를 위한 500명 규모의 비전투병 해외파병 내용을 담고 있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정당으로 통과시켰다. 파병에 따른 소요 예산 600억원도 한국이 자체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2003년 이라크전쟁

이제 국제법 정도는 기법적 무시하고, 유엔의 결정사항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대이성 명분이 없어 ‘독재자 제거’라는 내장간섭성 명분까지 내걸고 일으킨 이번 전쟁과 같이 맹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전쟁도 세계 역사상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변상하지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이다. 일찌감치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여 ‘전쟁 동맹’ 30개국의 일원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파병까지 하였다고 나서는 한국. 더욱 심각한 것은 이라크전 파병동원의 처리를 위해 21억(금) 개회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후복구 참여, 북핵해결의 평화적 해결 등의 이유를 들면서 파병지지를 최대한 빨리 앞당기고 파병규모를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는 데 있다. 한국 정부의 이 기구한 운명은 언제까지 끝이 날 것인가?

김정희 기자 77kjee@hanmail.net

용인배우터 수습기자 추가모집

여러분을 위한 자리, 비워놔주세요!

- 대상 : 02, 03학번 새내기
- 문의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 홈페이지 : www.ihufsan.com

- 기간 : 4월 14일(월)까지
- 전자우편 : oedaepress@hanmail.net
- 연락처 : (031)330-4112

011-9843-0022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새로운 신봉제, '학벌'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

어머! 그 사람 S대야? 어쩐지...

겨울방학이 지루해지기 시작한 2월말, 좀처럼 MSN에 신봉제에서 볼 수 없었던 친구녀석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한 까닭에 언제나 불만이 많았던 그 녀석, 뭔가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녀석은 결국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편입을 결심했으며, 오늘은 그 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은 날이라며 그동안의 연학수입에 대해서 설명했다. 친구의 활력에 축하를 보내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입을 결심한 녀석의 전공은 여전히 그대로있기 때문이다. '학벌'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분위기가 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무조건 학벌을 더 높일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녀석은 결국 전공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다.

메신저 속 그 녀석의 대화방은 '뭔가 잘못된 거지', '녀석은 우물쭈물 보냈다. 하지만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소위 말하는 대학생활에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가 위로 올라간 것에 대한 배움도 이유 중 하나였지만, 그보다 더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은 나 역시 친구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특유의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우울함은 친구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밝혀내도록 자극했다.

그들을 패배자로 만든것은?

'학벌'이 코스. 이것은 작년 새내기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발 오래동안 이슈가 됐던 주제였다. 그 코스만큼, 일단은 적성이나 원하는 전공과는 상관없이 점수에 맞춰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두번째는 2학년때 가장 편입이 잘 되는 과로 전과를 한 후, 마지막으로 학벌을 높일 수 있는 학교로 편입하는 것.

물론 이런 코스를 따라 학벌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활의 반 이상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들은 소수이다. 그렇다고 다수의 0학번 새내기들은 학벌에 대해서 무관심일까? 대학생활에 막 재미를 붙였다는 박지혜(사유림·영어학부 03) 앞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학벌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내기보다는 좀 더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자식이, 겪은 경험을 털어놓았다. '열심히 과목들끼리 술자리를 가졌는데 '패배자들의 모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많은 동기들은 능숙해서 실력 발휘를 못했더라면 아쉬워했다. 입학한지 한 달도 안됐는데 재수·편입을 생각하는 동기들도 너무 많았다. 슬피 웃으며 웃었다.'

또다른 새내기 이혜선(법·법학부 03)의 고등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 이양은 "고등학교때부터 '서울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유독 그 반만큼은 여름에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든지 문체부를 제공해주는 특별대우를 해줬다. 그래서인지 '서울대'가 아닌 학생들은 절로 는 표현을 안 했지만 위화감을 느꼈고 또 '서울대' 아이들도 특권적 비슷한 것이 있었다"



우리 사회의 학벌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것

며 성공하려면 명문대를 가야한다는 의식이 고교때부터 자리잡게 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고교생활을 겪은 새내기에게 학벌로 인한 피해의식은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졌다.

어! 그 사람 S대였어? 전작 말해주지

새내기들을 만난 후 학업한 기분에 잠겨있던

중, 평소 '바둑'로 소문난 동료 장은경(동유럽·체육부 02)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다른 학벌의 비애를 접했다. 그녀는 "소개팅을 주선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학벌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자가 소개팅을 주선할 때, 소개팅은 이의 대부분은 가장 먼저 학교를 물어보

았다고.

"한번은 학교를 가르쳐 주지 않고 소개팅을 주선한 경우가 있었다. 반응을 물었을 때 그다지 매력적 못 느꼈다면 사람이 상대가 서울대생이었음을 알고 나 후에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지는 걸 많이 봤고,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하는 그녀. 최근 그녀가 학벌의 심각함을 느낀 경우는 다름 아닌 재팀.

"재팀할 때 대부분 학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정말 조심스럽게 서로의 학교를 밝혔을 때 서로간의 학벌에 차이가 많이 나면 갑자기 대화가 사들사들하고 어떤 백이 생겨버리는 경우를 종종 겪곤 한다"며 그녀는 학벌이 연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리적인 단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강조했다. 학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는 물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임을 느꼈다고 장기자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분제사회!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라는 책을 통해 학벌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동훈 교수(국민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벌은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교수는 "물론 어느 사회나 학벌은 있지만 한국의 학벌 사회의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미국·일본의 학벌과 우리의 차이를 설명했다. "미국도 물론 학벌이 있지만 아이비리그(IVY LEAGUE)라는 명문군으로 나타나며 그 서열도 매년 유동적으로 바뀌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도쿄대나 와세다, 게이오대 같은 명문 대학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진 편이다."

"김교수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학과의 1위를 서울대가 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엘리트층을 양성하고 독점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학벌사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지 않는...

우울함의 이유를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동안 학벌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해자가 됐다가 어는 순간인 피해자로 전락해버리는 학벌사회의 모습. 이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니, 어릴 적 유럽의 문화를 소개한 만화책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나는 파리 제 1대학에 다니나" 대학의 평준화가 실현되고 있는 프랑스에선 학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우리는 언제쯤 학벌이라는, 이 지독한 신봉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김동훈 기자

yonghun2000@hanmail.net

학벌, 식민지의 유산!
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학벌은 언제부터 우리사회에서 특별한 신분제로 자리잡게 됐을까? 우리나라의 학벌을 새로운 카스트 제도로도 이야기하는 김동훈 교수(국민대)는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1924년, 3·1운동 후 나타난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기로하고 소수 식

민지 엘리트층을 이용하여 일제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이 바로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이 장악한 남

쪽에선 임시정부군인운동의 일환으로 민족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교육적 루테타'로 간주했고, 정치·사회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좌익·민족적 성향을 배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립대학설립안을 추진했다. 이와같은 배경이래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각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1946년 설립된 것이 국립 서울대학교이다. 이처럼 식민지 교육의 대표였던 경성제국대학의 인적·물적 그리고 정신까지 이어받은 서울대가 원조시대의 관료교육기관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대학사회의 확립과 서열구조가 자리잡게됐다.

대학사회의 형성이후 50여년간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까닭에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서열체제가 더욱 공고

화됐다. 이런 한국의 대학 서열구조는 미국의 사다리형 서열 구조와는 다른 피라미드형의 계급식 서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분야별 서열화가 아닌 학교의 브랜드임식 그들서열화로, 이런 악상을 지닌 대학서열구조는 변형된 신분사회로서 학벌사회가 구축되는 결정적 기점이 되고 있다.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대학간에 서열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대학수준 평준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대학평준화를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대학입시를 없애고, 대학

을 수능점수로 서열화하는 명문대만을 정하는 정책을 통해 대학을 평준화하며, 수능시험을 대체할 만한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대학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학평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공존이라는 이원적 체제의 해결과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차별을 해결해야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종식시키고 대학의 수준 평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

김동훈 기자

yonghun2000@hanmail.net

소개 -〈학벌없는 사회〉

〈학벌없는 사회〉(www.antihtul.org)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에 따른 차별과 단절을 타파하기 위한 시민단체다. 〈학벌없는 사회〉는 학벌에 따른 차별과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인티학벌' 선언과 함께

다음의 9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특검을 타파함으로써 대학서열을 타파한다 △서울대 학부 폐지와 개방 △공직자를 대학별로 할당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점차 자격 고사로 바뀌어 한다 △지방합격대학을 대학평준화의 전진전로

로 삼아야 한다 △대학교수할당제 △사립대학 교육과 전문 직업교육의 강화 △사립대학의 재정적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대학장사 및 비정규직 대학교수들에게 교원근로법상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 99년 9월 〈깨끗한 시민운동〉 비서관을 위한 시민평론분과'로 시작한 모임이 2001년 12월 명칭을 〈학벌없는 사회〉로 변경하며 태어났

다. 도정임(경희대)교수, 역사학자 이이화 씨, 정희익(서울대)교수 등 교문을 열고 있으며 홍재화(한겨레 편집기획위원)씨와 홍훈(연세대)교수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3월, 〈학벌없는 사회〉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은 '학벌 개편수기'를 창간과 학생의 힘으로 이뤄내기 위해 〈학벌없는 사회〉 전국 학생 모임(준)을 결성했다. 그들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해 매우 언론모

나터린, 대학 내 공론화를 위한 대자보 쓰기, 대학 순회강연 등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학벌타파 운동과 함께 월례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한 학습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학벌에 의한 진입권을 갖지 않기 위해 처음 만날 때 서로의 학교와 학벌을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의 가장 최근 일정은 오는 4월 12일(토) 부산에서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다.

김동훈 기자

yonghun2000@hanmail.net



“철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어린 동물의 작은 상처 하나에도 함께 이파리는 아이처럼 그 마음을 나누는 철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감싸안는 철이 있습니다. 작은 철 끝으로 전하는 큰 사랑- 세상 모든 생명이 행복한 날을 소망합니다.

posco
소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우리 입에 딱이네!

은화야! 나 노래를 '우리나라' 콘서트 티켓 구했는데 공연 보러 같이 가자.
클레노! 노래를 어떤 단체인지 잘 몰라서 어색한데, 노래를 부를 곳이요?



지혜: 너 민중가요가 뭔지는 알지? 노래는 민중가요를 부르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 퍼듀에스케이 2(Fucking U.S.A. 2)의 우리나라, 바위처럼의 꽃다지, 사계를 부른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들이 유명한 노래이지.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이신 국어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민중가요를 많이 알려주셔서 노래패들을 많이 알고있는 편이야.

은화: 아... 민중가요를 부르는 사람? 우리 과에도 민중가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럴 게냐 속해 있는 곳이 노래패였구나. 나도 대학에 들어와서 선배들이 세터 때나 술자리에서 가르쳐 줘서 민중가요를 많이 들어보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너 민중가요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알고있니?

민중가요는 7~80년대 생겼는데 당시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어. 사람들은 사회 비판의 도구로 '아름아' 같은 가요에 새로운 의미를 붙여 시위현장에서 부르곤 했고 그런 노래들이 발전해서 민중가요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 국어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그 후 10여년 간 민중가요는 대중가요와 동등한 인기를 누리며 성장했고 80년대에 발표

된 노찾사의 2집앨범 '사계'는 50만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량을 기록했어.

50만장? 정말 인기가 많았나 보다. 예전에는 대학가에서 민중가요의 위치가 높았던단데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선 민중가요 음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봐. 물론 음반이 아니라도 인터넷을 통해 민중가요를 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엔 이제 민중가요가 원지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 특히 우리같은 세배기들은 선배들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민중가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맞아. 예전의 민중가요가 투쟁적 성격이 강하거나 시위 현장에서나 불리는 노래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 민중가요는 흥보의 부족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 90년대 이후에 꽃다지의 바위처럼으로 대표되는 경쾌한 댄스풍 음악이 나왔고 이전보다 '희망'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해서 처음 노래를 접해본 사람들도 쉽게 흥얼거릴 수 있도록 만들고 했어. 발라드 풍의 민중가요들도 많이 나왔고. 아마 인지전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나 내가 민일이란 노래는 그런 흐름을 타고 대중적인 인기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민일'이란 노래는 예전에 풍요배정음악으로도 사용된 만큼 친숙한 노래잖아. 그런 노래도 민중가요야? 그리고 드림 '눈사람' 주제곡도 민중가요인지 대중가요인지 구분하기 애매해. 그리고 보니 거북이의 '사계'나 엠씨 스나이퍼(MC Sniper)의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 같은 노래는 리듬이나 가사가 예전의 민중가요와 거의 같잖아. 이런 노래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거야? 민중의 대중가요?

나도 그 노래들이 처음 리메이크 됐을 땐 조금 혼동했어. 그래서 완전 중창 노래에 '해무리' 선배한테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 그때 선배는 민중가요가 사회적 문제나 대중의 삶과 관련된 노래인 것에 비해 대중가요는 '사탕'을 소재로 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하잖아. 또한 민중가요 노래를 만든 이들의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과 달리 대중가요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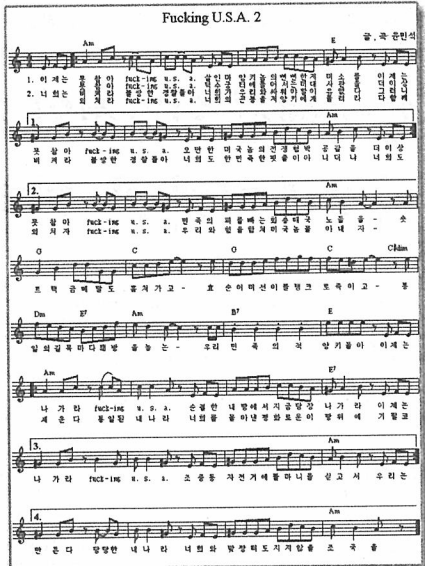
맞아. 생각해 보니까 민중가요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게된 후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 게다가 요즘 숏트랙 금메달, 마산이 효순이 사건으로 인해 반이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반이

관련한 민중가요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보니 시대에 따라 민중가요가 조금씩 바뀌었어?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 너무 거창한가? 어쨌든 사람들이 잘못 봤다고 느끼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민중가요가 담담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겠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중가요의 공통점은 비로 대중이 하고 싶은 말을 표명했다는 거야. 민중가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먼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좋은 노래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나도 같은 생각이야. 노래는 시대를 반영한다고 했잖아. 세월이 흐르면 해도 민중가요를 통해 당시 우리의 모습이 여백지지 않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가요의 발전은 물론 대중과 친숙한 노래를 부르는 노래패들이 많이 생겨나고 봐. 우리 노래패 공연 같이하지!

박은희 (전직정보공학), 박지혜 (사류원·영아 03)
정은경 기자 alcong2@hanmail.net



시대사너가데고

- 3월의 테마 : '꽃 [사:직]'

도니 다코 (미국, 2002)

감독: 리처드 켈리
출연: 제니 말론, 드류 배리모어, 페트릭 스페이지, 제이슨 길렌할
매: 3월 26일(화) 늦은 5시 30분
곳: 서울메가박스 640호(대형점 소극장)

1988년, 내성적인 성격의 고교생 도니 다코(제이슨 길렌할). 어린 가 얄음으로 뼈뼉하게 보이는 그는 가족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소년이다. 어느 날, 자고 있던 그는 이상한 목소리를 따라 정원으로 나가게 되고, 그 곳에서 가대 한 토끼 괴물을 만나.

프랭크라는 이름을 가진 괴물은 도니에게 28일 6시간 42분 12초 후 할로윈 데이에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도니의 방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명기 연진이 떨어진다. 도니가 꿈을 꾸는 대로 학교에 몰락하기는 하지만, 역시 도니의 악몽처럼 집 카닝햄이라는 성격 개조 문물기의 집이 몰락하고 하는 등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 문물 시간 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도니는 이 모든 일들을 발생시킨 기이한 원인에 접근해 가는데...

▶자료제공: 서현미(시상·불어 99)

'우리나라'의 멤버이자 외대 선배인 백자경영 90학번씨와 이해진티커와 95학번씨를 만나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통일을 앞당기고 싶습니다"

먼저 그들 '우리나라'의 명칭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백자: 먼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거의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남북한을 우리나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남과북은 하나' 이런 의미로는 우리라는 어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요.

22일 토요일 열린 콘서트 가지는 주제나 특별함 이 같은 것이 있나?

이해진: '대법원판결'라는 주제에 대한 민족의 자주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우리민족의 한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했어요. 일본이나 미국에 의해 자주적인 역사를 가질 수 없었던 지난날의 한을 떨쳐버리고 솟발사위 해 보려 주었던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또 선포하려는 것이죠.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쳐 지난날의 한을 푸는 자리가 됐으면 해요.

연제부터 노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계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백: 대학 1학년 2학기 때 처음 노래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외대에서 '백박'이라는 노래패를 처음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사회에 나와서 노래운동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뜻을 공유하던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활동하게 됐습니다.

보통 민중가요라고 하면 '동지'라든가 '투쟁'이라든가 하는 단어들에 처음 접하는 세배기들에게는 낯설기 마련이거든요?

백: 일단 세배기들에게는 학생운동 자체가 낯설죠. 하지만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뒷날엔 역사를 알게되고 종교학과 시절에는 볼 수 있었던 사회의 다른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되고. 대학은 진보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성인으로서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서서히 갖게 될거예요.

'우리나라'가 노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남북이 아닌 하나인 우리나라를 만드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표였어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통일된 우리나라를 더 앞당기고 싶다고 해야할까요?

그동안 불렀던 곡 중에 특별한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나?

이: 다 기억에 남지만 '범민족 전사'라는 곡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범민족 남북부에 상임부의장으로 있으면서 김일주 선생님께서 2000년 옥중에 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선생님의 비치는 노래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삼아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는 노래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03학번 세배기



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백: 앞으로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민중들의 삶과 함께 하고 싶고요. 세배기들과는 민중들의 아픔과 싸움이 있는 곳, 솟발사위 같은 거리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

곽혜미 기자 gantzhyemi@hanmail.net

내가 만드는 따끈따끈한 기사 한 그릇!

www.ihufsan.com

민족자주연론 외대화보

책 소개

한글판

anger

탁난한 신념 / 명진출판사 / 9,000원

노벨평화상 후보자이자 세계불교계의 상징적 인물인 지은이는 화를 디스하 마 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를 이 책에 담고 있다. 이 책은 신재창을 참부모 때애낼 수 없었던 화도 우리의 일부이므로 억지로 참거나 제거하려 애를 필요없다고 전한다. 오히려 화를 서화하고 감자, 들고 있는 아기에 비유하며 보통과 달래야 한다. 특유의 넉넉한 시선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하는 평생 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 평생 전쟁과 폭력의 한가운데를 걸어오면서도 자비를 잃고 온몸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지은이는 그의 신념을 그대로 녹여내면서 우리에게 화를 디스 할 때마다 생활에서 놓쳤던 작은 행복들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문화 캘린더

공연정보

국립국악원악단 제2회 정기 연주회 (2003 가래의 노래편)

일시: 2003.03.29 ~ 2003.03.30 (토요일 4시, 개교 10주년)

장소: 국립국악원 해오름극장

문의: 02-2744-2607-8

티켓: 으뜸석 10만원, 대석석 5만원, 일반석 3만원, 비영입입석 1만원

이트플러스 제2회 정기 연주회

일시: 2003년 03월 29일

시간: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출연: 고선애, 정영혜, 김태희, 서희정, 이영희

가득: 10,000원

문의: (457-1973)

전시정보

아이 유. 애스 전 (i. you. us.展)

일시: 2003.03.03 ~ 2003.03.30 평일요일 휴관

장소: 삼각미술관 12층

문의: 02-737-7650

티켓: 학생 10,000원, 대학생 20,000원, 일반 30,000원 (단체 20%할인)

국제미디어 페어 2003

일시: 03월 21일 ~ 4월 07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층

문의: (723-4741)